

“도시철도 2호선 수영대회 이후 착공”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1년 시민과의 토론회
“광주형일자리 지역 청년들에 좋은 일자리 제공”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의 첫째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광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취임 1년 시민과의 토론회에서 “광주형일자리 사업 지역인재 참여에 관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지역대학과 지난 5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와 대학간 인력양성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시민이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취업 당사자인 지역청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청년 고용효과에 대해 시장님께서 말씀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는 “광주수영대회(7월 12일~28일, 마스터즈대회 8월5일~18일)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단계가 완공되고 순차적으로 3단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리고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많이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총 연장 42km의 순환선으로 건설되

며, 기존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광주지역 대부분을 30분대로 이동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혁신 등 시장 직속 ‘광주 혁신 추진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실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기관 혁신안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인력채용을 위한 통합 채용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 등 다른 8건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여부를 직접 챙겨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1년이 혁신과 소통으로 광주의 기틀을 다진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시기였다면 앞으로 3년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하는 결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혁신추진위의 혁신안을 바로바로 시행해 시정을 변화시키고, 시민권익위

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이어가 소통을 한층 강화하며,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청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위원들과 공직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남은 3년의 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이 시장 1년 업무 성과를 보여주는 영상물 상영 등판에 박힌 형식이었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었으나, 이 시장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청년 일자리 정책 유튜브로 홍보

30개 정책 구직·채용 등 구분
홍보 영상 4편 동영상 공개

광주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영상으로 쉽고 친근감 있게 설명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광주시는 ‘2019 청년일자리지원정책 종합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제작한 홍보영상 4편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개된 홍보영상은 청년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친근감 있고 재미를 더해 만든 영상 2편과 애니메이션 2편이다. 홍보영상은 시가 시행 중인 30개 정책을 구직, 채용, 근무, 창업 등으로 나눠 구성됐다.
구직단계에서는 광주청년 교통수당 등 9개 사업 ▲채용단계에서는 광주청년 일 경험 드림사업 등 6개 사업 ▲근

속단계에서는 청년 13(일+습) 통장드림사업 등 5개 사업 ▲창업단계에서는 청년예비창업가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설명한다.
홍보영상은 시 유튜브(www.youtube.com/user/livegwangju)와 홈페이지(www.gwangju.go.kr), 네이버 블로그 ‘광주광’ (saygi.com)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에서 ‘광주청년(광주청년일자리)’ 축약어로 검색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홍보영상은 청년들이 모든 제작과정에 참여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청년이 주연배우 역할을 맡았고, 참여한 인원 10여명 모두가 38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만의 감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일 경험 드림사업으로 촬영을 하며 직무경험을 쌓은 청년 1명은 함께 촬영한 영상업체에 정규채용 등 9개 사업 ▲채용단계에서는 광주청년 일 경험 드림사업 등 6개 사업 ▲근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민선7기 2년 새로운 시작 열린토론회’에서 이용섭 시장과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참여하세요”

6개 유형 320개 사업장
510명에 5개월 일경험

광주시는 오는 19일까지 ‘광주청년 일 경험드림사업’ 6기로 참여할 청년 51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광주청년드림 공식사이트(www.gj3dreams.modoo.at)에서 ‘온라인 사전신청’을 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드림 만남의 날’에 참석해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드림청년에게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기업 등 6개 유형의 320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생활임금이 적용된 임금(시간당 1만90원)도 제공된다. 하루 5시간 만근하면, 한 달 132만원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사업장 정보와 청년에게 제공될 직무정보를 드림터치(DB) 사이트(www.gjdreamworks.modoo.at)에 사전 공개한다.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 ‘광주청년드림’) 1대 1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수시로 해소할 수 있게 돕는다.
/김형호 기자 khh@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무안공항 활성화 꾀한다

전남도, 무안~후쿠오카 정기노선 취항 연계 관광상품 등 마련

전남도와 제주항공이 무안공항 띄우기에 적극적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무안공항을 활용한 여행상품을 내놓는다.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마련해 인천공항 대신, 무안공항에서 일본·동남아 등으로 떠나는 광주전남 여행객들을 붙잡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무안의 ‘하늘 길’이 넓어지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데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공항 활성화를 꾀하는 등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제주항공이 1일부터 취항한 무안~후쿠오카(주 4회) 정기노선과 연계, 일본 방문객들을 위한 2박 3일 여행상품을 내놓았다. 일본인이 선호하는 전남 지역 명소를 대상으로 힐링·휴식, 남도 맛 집·카페 등을 찾아 떠나는 여행상품으로, 신안 천사대교와 자은도 해수욕장, 광주·18민주화운동기념관, 담양 죽녹원과 대나무박물관, 목포 공생원과 근대역사문화거

리 등을 둘러보는 일정과 광주 팽귤마을과 무등산 일원, 광주 김치타운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담양 죽녹원과 소쇄원 등 지역 명소를 찾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전남도는 또 12일부터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국내외 선수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탐방코스 등 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남도한바퀴 특별상품(10개 코스)도 마련했다.
제주항공은 무안~후쿠오카 신규취항을 기념, 오는 8월 31일까지 무안공항을 출발하는 10개 전 노선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

을 진행하는 등 광주전남 해외 여행객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편도 항공권을 기준으로 후쿠오카는 4만5000원에 갈 수 있고 오사카는 6만2300원, 세부는 8만5700원 등이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제주항공측 설명이다.
제주항공은 앞서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에서도 면세품 판매와 사전주문 기내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해외노선 증편과 이용객 증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광마케팅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마이스산업 인재 육성 나섰다

청장년층 MICE 아카데미 운영

전남도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인재 육성에 나섰다.
전남도는 1일부터 2개월간 마이스 산업에 관심이 많은 청장년층 50명을 대상으로 ‘전남 글로벌 MICE 아카데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지역 마이스 산업 중심지인 여수에서 국제회의와 전시산업을 중

심으로 산업현황, 행사기획, 운영 실무, 비즈니스 매너 스피치 등의 교육을 받고 마이스 행사 참가, 시설 견학, 실무진 인터뷰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게 된다.
전남도는 다음달부터 목포에서 2차 마이스 아카데미를 진행하기로 하고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마이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